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소식지

제 9 호

# 백리

萬枝一根

- 발행처 : 사천이씨 대중회
- 발행인 : 회 장 이 영 섭
- 편집인 : 부회장 이 영 근
- 발행일 : 2023년 4월 16일

| 주소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여옥길 9 | <http://cafe.daum.net/sacheonleec> |

## 존경하는 종친 가족 여러분!



사천(동성)이씨대중회  
회장 이 영 섭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전염을 줄이고자 시행한 ‘국민거리두기’가 새봄과 함께 무려 3년이라는 길고 답답한 터널의 끝 자락에 이르러 동토의 녹아내린 대지처럼 유연해지고, 이전의 일상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인님들께서 이를 이겨내셨고 또 액운을 잘 막았습니다. 금년부터는 다행과 즐거움만 가득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우리 사천(동성)이씨는 사천을 본으로 하는 몇 안되는 사천의 성씨 중 유일하게 대중회를 사천에 조직하여 전국으로 활발한 모임을 갖고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씨족의 역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 중 3대 휘(諱) 종(琮)께서는 고려 때 문원공(文院公)의 시호(諡號)를 받기도 하셨으며, 6대 교도공(敎導公)께서는 임금으로부터 은대를 특사받은 공적이 있습니다. 특히, 11대 구암(龜巖) 이정(李楨)선생은 나이 23세 때 장원급제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사천이 무(武)의 고을이 아니라 문(文)의 고을로 각인시키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지방관으로 재직시 공적을 인정받아 3대(代)에 벼슬이 추증(追贈)되었고, 전국에 서원을 세 곳에 건립하였으며, 성리학 서적 24종 140여 책을 편간하여 많은 서원에 공급하여 성리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종친 가족 여러분!

구암 선조에 묘역 성역화와 대중회 건물의 대대적인 보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우리의 관향인 사천시는 이제 우주로 향해 비약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KAI에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고 달 주변을 돌고 있는 누리호의 중요 부품도 생산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웅비하는 사천의 토성인 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타에 부러움을 받는 씨족이 되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천사랑, 고향사랑’ 운동에도 많이 동참하여 주시고, 끝으로 금년에도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묘년 새봄을 맞으며 조원사에서..



# 2023년 대중회 이사회 개최

## 2022년도 주요 중무 보고

1. 2017. 2. 12(일). 11:00 조원사 일원재, 정기이사회 개최

### I. 조원사건물(지붕) 보수공사

#### 1. 계약

- 대중회 임원회의(2차) : 2022.3.12. 및 4.23.
- 파조별 대표자 회의(3차) : 2022.7.9.
- 공사관련 도급계약
- 공사부분 : 4동(사당, 내삼문, 일원재, 추원문)
- 계약금액 : 4,500만원(추가공사비 별도 산정 지급)
- 시공업체 : 진양고건축 대표 정순홍 (010-5479-4010)
- 공사기간 : 2022.7.9. ~ 11.30



#### 2. 보수공사 추진사항

당초 사당은 부분 보수만 하려고 했으나 전면 수리하여야 할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지붕을 다시 이었으므로 수리비가 200만원 추가 소요되었음. 일원재 미장은 추후 경비를 확보 후 하기로 변경



### II. 구계서원 대관개 유계회이사장 선임 협의

- 일시 : 2022.9.10.(토) 14:00
- 장소 : 부산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1층 커피숍
- 참석 : 6명
- (대중회장, 부회장, 총무, 전화장, 구계서원장, 이팔성)
- 협의내용 : 차기 대관대 유계회 이사장 추천 문제 협의



### III. 제11회 구암제 및 전국한시 백일장 (주최 : 사천시, 주관 : 사천문화원)



- 구암제 전국 한시 백일장 : 2022.10.8.(토) 10:00
- 백일장 결과 : 장원 광주 북구 심명석 (상금3백만원)

- 전국 서예 문인 회호대회 : 2022.10.9.(일) 10:00
- 회호대회 결과 : 대상 삼천포 이가은, 최우수 정동 대산 출신 이명선

### IV. 국제퇴계학 연구회 학술대회 참석

- “제27회 학술논문 구암 이정의 인물 사상”
- 일시 : 2022.10.21.(금) 14:00
- 장소 : 서울 명륜동 퇴계학 연구원
- 참석 : 8명(대중회장, 부회장, 전화장, 총무외)



### V. 호남선비정신 뿌리 월봉서원 현지 방문

- 발표내용 : 구암학의 자료범위와 조선지성사에서 구암 이정의 역할(경북대 정우락)

- 이정의 주자학과 경학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 이영호)
- 일시 : 2022.11.9.(수)
- 장소 : 고봉 기대승선생 월봉서원(광주 광상구 소재)
- 주관 : 구계서원
- 참석 : 서원장, 대중회장 외35명
- 대중회 경비협찬 : 100만원



### VI. 파조대표회의

- 일시 : 2022년 12월 17일 11시
- 장소 : 청학골
- 참석자 : 11명
- 결의사항 : 차기 이사회시 시행치 못한 벽 미장과 목재부 단청 및 마당 포장보수에 소요 재원을 확보방안 마련키로 함.



### VII. 이담 선조 신도비 도문화재 신청 회의

- 일시 : 2023년 1월 4일 11시
- 참석자 : 이영섭 회장, 이은식 서원장, 이영근 부회장, 이형환 부회장, 이오수 이사, 이대중 우소재공파대표, 이영기 백인재공파대표, 이인찬 성균진사공파대표, 이영근 총무국장
- 신도비 관리자:우소재공파 대표
- 결의사항 : 경남도에 신청하기로 결정



## 2023년도 주요 중무 계획

### 1. 춘계제향

- 일시 : 2023년 4월 16일 11시
- 장소 : 조원사
- 유사 : 우소재공파
- 제수비 : 300만원



### 2. 중보 '뿌리' 간행

- 발행시기 : 춘계제향, 편집위원 : 이영근 부회장



### 3. 정문 입간판 설치: 2월중 완료함, 소요예산 200만원



### 4. 대중회 경내 미완성 부분 보수공사

일원재 미장공사 600만원 소요  
조원사, 일원재, 추원문, 경덕문의 목재부 도색 1,500만원  
지난해 보수공사 중 초과금액 200만원



### 5. 파조별 분담금 300만원 - 총액 2,700만원

### 6. 사천관내 초,중,고 전 학교 방문홍보

사천이씨 유래 및 3세조 문원공, 구암선생 유덕 홍보

### 7. 각종 재고 서적 처분 : 저렴하게 공급 - 사업재원 확보

족보 1질 30,000원, 구암문집, 수서시집, 씨족사총람은 추후 결정

### 8. 대동보 간행 (전자족보 포함)

대동보간행 편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9명, 재정국장, 수단위원 30명 (각 파조별 수단위원 3명을 춘계제향 때까지 제출바람.)

#### 전자족보 홈페이지 개통

- 2023년 9월
- 족보발행 예정일 : 2025년 4월



# AI 시대, 구암 이정(李楨) 선조 예찬



참지공파 제24세 이선영

## 춘계대제에 거룩하신 구암 할아버지를 모시다

구암 할아버지! 소생은 사천(동성)이씨 참지공파 24세손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500여 년 전인 1512년에 사천 구암리에서 태어나셨지요. 후손들은 시조공 식(軾)자 할아버지로부터 11세손으로 알고 있나이다. 1571년 4월, 채 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별세하실 때까지는 씨족체계를 상세히 알 수 없었다가, 별세 후 200년이 지난 1771년 조선(朝鮮)시대에 사천과 그 인근 지역 후손들이 족보(族譜)를 처음 발행하면서 세대(世代)와 파조(派祖)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선대에 거룩하고 훌륭한 할아버지가 계셨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할아버지! 오늘은 30년 전 후손들이 본관 사천에 세운 조원사(肇源祠)에서 시조공 이하 6세 7위의 선조를 배향하는 춘계대제일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1만 1천여 후손은 이 자리에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지금 소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인공지능(AI)이라 하여 신(神)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는 저장된 생전 '데이터'가 없거나 부족하여 대면과 통화를 할 수 없고, 말씀을 하셔도 후손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생의 말씀을 듣고만 계시고 고개만 끄덕여 주옵소서.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하신 일은 잘 아실 것이지만, 별세하신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후손들은 할아버지께서 태어나실 때 신동(神童)이었다 하고 있습니다. 12세 소년이 경상도 하과에 응시하여 장원급제, 25세 청년이 과거시험 문과 별시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를 하셨습니다. 그 후 각종 관직에 등용되어 성균관전직을 시작으로 성절사(聖節使) 서장관(명나라 파견 외교관), 귀국시 송학(宋學)서적 대량 가져와 성리학 연구, 예조정랑, 영전군수, 선산군수, 청주목사, 승정원 좌승지, 병조참의, 대사간, 경주부윤, 신라 역대왕릉 수축(修築), 서약정사(서약서원) 창건, 호조참의, 순천부사, 한헌당 김굉필의 경현당 및 옥천정사(옥천서원) 창건, 흥문관 부제학 제수(除授), 대관대 및 구암정사 건립 등이 있었고, 지방관직에 계시면서 출간한 성리유편, 경현록 등등 그 시대 학자 중 가장 많은 24권의 성리학 서적을 출간하셨습니다. 이는 생전에 하신 일이라서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별세 후 이러한 유적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도서 편찬은 성리학 보급과 조선의 역사·교육 문화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이에 관해서는 잘 모르실 것이옵니다.

이제 부족한 이 소생이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신 후 어떠한 일 들이 있었는지 아는 대로만 고하겠습니다. 준엄(峻嚴)하신 말씀은 들을 수 없으니 어찌하오리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늘 시조공 참배를 하러 온 후손들은 500년이 넘도록 거룩하고 훌륭한 할아버지의 업적이 여태까지 땅속에 묻혀 있었는가 하고 안타까워 하지만, 후손들의 탓만은 아닌가 보옵니다.

## 조선의 멸망,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탄생

할아버지께서는 별세 후 왜적의 침공을 예상하시고 평장(平葬)하라는 유언을 하셔서 후손은 구계서원 인근 양지바른 곳에 할아버지를 평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언하신대로 21년 뒤인 1592년부터 6년간 왜적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일으켜 온 나라가 초토화 되었고, 그 당시 묘소가 훼손되는 바람에 지금의 묘소로 이장하였나이다. 별세하실 때 국왕이 내린 사제문(賜祭文)과 미수 허목 선생이 쓴 묘갈명은 할아버지의 인성과 업적의 훌륭하심을 상세히 기록하여 후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하실 때는 국왕이 지관(地官)까지 보냈다는 소문이 있으나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묘소는 지금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차손이신 곤변(鯁變) 파조께서는 이순신 장군과 참전하여 전공을 세우고 안타깝게도 전사하셨습니다.

1863년 고종 임금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조선왕조의 국운은 기울어지고,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12년 임자년에 대관대유계회라는 496명의 거대한 유림단체가 결성되어 할아버지를 추송(追崇)하였나이다. 대원군의 서원철폐가 있는 후 63년 만인 1931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구계서원을 증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의 업적은 제자와 후학(後學)에 의해 계승 발전할 수 있었나이다.

그러나, 36년이라는 일제강점기가 계속되면서 조선은 거의 일본화 되어 갔습니다. 친일로 득세하는 조선인도 있었고, 조선의 뿌리와 문화를 덮어버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동조세력도 나타났습니다. 정사(正史)를 번역하여 백성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역사 왜곡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권력자는 자신의 선조를 모시기에 바빴겠지요. 이 시대에 할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후손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무렵, 일제는 영토를 넓히려고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으나 패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을 하고, 조선은 해방이 되었으며, 승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조선은 무너지고, 일제에 나라를 강점당하기도 했으나 새로 탄생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

권 내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행기라는 동체가 사람을 하늘로 나르게 하고, 30년 전부터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겨서 사람의 말과 행동, 지식, 생각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행하는 수없이 많은 일을 문자, 숫자, 소리 등으로 저장하였다가, 사람도 아닌 것이, 무엇을 물어보면 AI가 이를 대신 응답해 주는 세상이옵니다.

## 구암학 현창, 탄신 500주년 기념식, 구암총서 발간

할아버지! 기뻐하십니까, 때늦은 감은 있으나 묻혀 있었던 할아버지의 업적이 현세에 와서 연부역강(年富力強)한 신진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인 2002년 8월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사천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개최된 구암학술대회에서 31편의 옥고가 발표되어 구암학 연구가 현창(顯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10년 전인 2013년 2월 할아버지 탄신 500주년 기념식이 사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나이다. 유학에 관심이 있는 1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있는 이 기념식을 계기로 구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구계서원과 사천시의 발주로 5년간 6억원을 들여 "구암총서" 발간 사업이 추진되어 2022년에 이를 완료하고 인쇄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한국사상사의 새로운 정립"을 목적으로 수행된 이 총서의 원고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니 참으로 방대한 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술대회가 마중물이 된 구암총서가 발간되면 할아버지의 생전 업적이 되살아나 세상에 알려지고, 임진왜란 이전 조선 전기의 잘못 알려진 역사, 알려지지 아니한 역사가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손들은 나라가 바뀌고, 통치구조가 달라져도 조선 개국 초인 1459년 6세조 교도공께서 주인공이 된 수서시(壽瑞詩)를 할아버지께서 시첩(詩帖)으로 완성한 그 시대의 의젓하고 당당하셨던 모습을 상상하며, 후손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나이다.

## 할아버지와 함께 유적을 둘러보다

할아버지! 이제 부족한 이 소생과 함께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일구어 놓으신 유적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고도 경주로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부윤(府尹)으로 계시실 때 세우신 서약서원은 경상북도 문화재로 등록·관리되고 있고, 생전에 경주 부민이 세운 선정비인 거사비는 비각(碑閣)을 세우고 단청까지 하여 서원 경내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수축(修築)하신 신라 왕릉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 해마다 문화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후자는, 경주를 되살리는데 전환점을 마련한 인물은 조선시대 구암 이정 선생과 현재의 박정희 대통령이라 하고 있습니다. 거사비문에는 "... 공은 어질고도 청렴하여 오래오래 잇을 수 없으리. 오~ 거룩하여라." 하고 새겨져 있습니다. 경주 인근 감포 앞바다에 있는 신라 문무왕릉(대왕암)을 볼 수 있는 이견대에는 "... 아침 해가, 펄럭이는 붉은 비단 사이로 솟아 오르네. ... 대왕바위 아래엔 천길이나 높은 파도 일어나고, 먼 바다 수문을 향해 옥피리랑 불지마오 ..." 라고 하는 할아버지 시(詩) 두 수의 현액(縣額)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할아버지께서도 감개무량해 하실 경북 안동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는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 주자장 아래 낙동강 변 언덕에 자리 잡은 석간대(石澗臺)라는 곳입니다. 생전 할아버지께서 경주부윤 재임 시에 그 먼 안동까지 오셔서 퇴계 선생 댁에 3일을 머물고 헤어질 때의 아쉬움을 읊은 시를 퇴계 후학이 돌에 새긴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대 떠난 봄 동산에 누구랑 같이 놀고, ... 이따금 그리워 생각하면 이 물가에 다시 오리." 라는 퇴계 선생의 송별시에 대해, "아쉬움을 참을세라 어느 해에 다시 벗할거나, ... 시냇가에서 떠나는 이 보내며 친절한 말씀, 지난날 돌이키면 어진 분 백발이 성성하리라." 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답시가 있었지요. 후세 사람들은 이를 두고 두 분이 얼마나 친하고, 3일간 무슨 담론을 하셨기에 이런 글을 주고받았는지 감탄을 한답니다.

안동 북쪽에 할아버지께서 목사(牧使)로 재임하셨던 청주시가 있는데, 그 때 백성들이 선정비를 세웠다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리 남서쪽에 있는 호남 순천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사(府使)로 재임하셨던 이곳에 재임 중 한헌당 김굉필 선생의 학덕을 기려 임청대비를 세우고,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옥천서원을 창건하셨으며, 지금 전라남도 문화재로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순천부사로 퇴임하신 후 순천 부민은 환선정(喚仙亭) 연못가에 귀부(龜趺)와 비신(碑身)이 법상치 않은 선정비를 세웠습니다. 전란으로 선정비는 일부 훼손되고, 행정관청의 무관심으로 옥천서원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품격이 맞는지 모르지만, 7개의 비석군에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선정비를 옥천서원 옆으로 옮기려고 해도 관청에서는 토지와 선정비의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할아버지 서운해 하지 마옵소서. 조선 말기(1784년) 순천지역 문인 조현범이 쓴 강남악부(江南樂府)에는 "바위 바위 거북바위 선생이여/ 가정(嘉靖)시대에 우리 승평을 잘 다스렸네/ 임청대 밑 높은 곳을 방문하러 옥천가에 이르렀네. ... 그대는 보지 못하였나/ 선정비가 성 동쪽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을/ 지금에도 밝은 교화를 추억하게 한다네." 하고 선정비의 시가(詩歌)를 읊고 있나이다. 할아버지의 초상화, 과거시험 장원 급제 재현, 장원급제 후 고향에서의 삼일유가 행렬, 구암연구·학술대회 등과 같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가고 있어야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 다시 할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끝

# 소식지 10호 원고 모집

여기 소식지 10호에 담을 원고를 청탁하오니, 부디 사양마시고 보내 주시면, 정성드려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 ★ 소식지의 성격 : 학술적인 것 보다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중심으로 가볍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소식 또는 우리 관향인 사천의 문화 등
- ★ 원고의 분량 : 제한 없음(반드시 개인사진, 자료사진 포함)
- ★ 원고 송부 마감 일시 및 소식지 10호 발행 일시 : 2024년 3월말, 대중회 춘향제
-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또는 광고비 : 대중회 사무국
- ★ 원고를 보낼 곳 : e-mail ✉ leeyg@chol.com

편집위원 이영근 (선무랑공파 제24세, 010-2586-2094)

## 부고(訃告)

대중회 이봉록(첨정공 제22세) 대부님이 2023년 3월 28일 별세 하셨습니다.



이봉록 대부님은 퇴임 전에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셨고, 퇴임 후에는 사천시 노인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대중회 제6대 회장으로 재임기간은 2008년 4월~2010년 4월입니다. 우리 대중회뿐만 아니라 사천지역에서 덕망 높으시고, 선조를 모시는데 최선봉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꾸준한 노력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문중의 화합과 운영에 모범이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혜 샘물과 생활 영웅



참지공파 제24세 이 기 명

## 1. 지혜의 샘물

- "고난이 선물이다" 책에서 떠내온 지혜의 샘물입니다. 한 컵 할래요. 삶은 고난인가? 축복인가?
- 삶은 노력(공부, 일, 고난, 고통, 위험, 병고, 역학)속에 행복을 깨내는 작업입니다.
- 고통은 생명의 일부이고, 고난은 행통의 일부이고, 실패는 성공의 일부입니다.
- 나무는 가지가 짐이 아니고, 새는 날개가 짐이 아니고, 사람은 가정이 짐이 아닙니다.
- 능력이 일을 시작하고, 인내가 일을 지속하고, 믿음이 일을 마칩니다.
- 고독없이 성장할 수 없고, 고난없이 성숙할 수 없고, 노력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이 활짝 꽃피 수 있을텐데 아닙니다. 부족한 건 도움이 아니라 내 열정입니다.
- 말은 생각의 씨앗이고, 결정은 운명의 씨앗이고, 씨앗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 자유롭게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 자유의 본질은 욕망을 마음껏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줍니다. 희망은 고난과 역경을 이깁니다. 그러나 사랑은 고난과 역경 속으로 뛰어듭니다.
- 지혜는 겸손자에게 흐르고, 사랑은 낮은자에게 흐르며, 평안은 믿는자에게 흘러갑니다.
- 감사의 깊이가 삶의 깊이입니다. 무슨 일이건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 정의는 힘없는 사람들이 이 힘을 갖게 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자제할 줄 아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 내 안의 선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고, 내 안의 악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칩니다.
- 나눔이 있어야 더함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상생이 있습니다.
- 사랑은 더 나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볼든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사랑은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했더니, 어느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는 삶입니다.
- 내가 잘되는 것은 작게 잘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남이 잘되는 것은 크게 잘되는 것입니다.

단기 4553년 서기 2020년 봄이 오는날 행복을 깨는 그대에게

## 2. 우리들은 생활 영웅

① 쉬어가게 그대 얼굴  
 마주보니 흰머리에  
 주름살이 쪼글쪼글  
 그 팽팽한 고운 얼굴  
 능글한 모습 보이지 않네.  
 살아온 인생 계급장이라  
 일러주네 삶의 무게로  
 찌그러졌소 그 무게가  
 얼마인가? 가마솥보다  
 무겁고 벼겁다오.  
 그 버거움을 짊어지고  
 몇 굽이 인생길을  
 넘어섰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버티면서  
 이곳까지 왔소이다.  
 후유! 좀 쉬어야겠소.

② 그대는 장하고 대견하오.  
 우리 모두 영웅이 아닌가?  
 그럼 그럼 애국 영웅 있으면  
 우리들은 생활 영웅이오.  
 자자 보시구려 그대 모습  
 어떻게 힘쓰고 애썼는가?  
 승풍파랑 살아야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  
 착한 의지로 성실히 열심히  
 땀 흘렸기에 행운을 만나  
 큰 파도마저 비껴갔소.  
 신고 가꾸다 보니 보람을 만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긴 해도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으니  
 마냥 감사한지고  
 살아가는 것은 고생인 듯한데  
 살아 있음은 축복이라.  
 그대 말씀 듣고 보니  
 복받은 것 같아오.  
 승승훤훤 승승훤훤이여라.  
 함께 하시어서 기쁩니다.  
 우리 서로서로 위로해 주세요.



서기 2023년 2월 5일 / 24대 이기명 쓰다

# 이담신도비(李澹神道碑)



구계서원 서원장 문학박사 이 은 식

1 이담신도비는 구암 이정선생의 부친 이담에 대한 신도비이다. 신도비는, 신이 다니는 길을 표시하는 비로서, 종 2품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건립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묘의 동남쪽에 일반적으로 건립한다. 비문에는 신도비 주인의 행적과 인품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담신도비는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이공신도비(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李公神道碑)이며 남명 조식선생의 지었다.

사천시 구암리 사천이씨 선영에 건립된 이담신도비는 1568년에 건립되었으나, 후일 1875에 개립하였다. 그런데, 개립하면서 이 신도비는 이름을 바꾸어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이공 휘 담 자 언숙지묘(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李公諱澹字彥淑之墓)라고 하여 신도비라 기록하지 않았다. 원래의 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남명이 지은 신도비의 비문은 남명집에 기록되어서 전하여지고 있다.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첫째,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을까?  
 1875년에 개립한 비문을 보면, 이 비문을 지은 사람은 구암의 후손이고, 글을 쓴 사람은 삭녕최씨문중 사람이다. 무슨 연유로 신도비를 묘비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 비문은 많은 조선조 성리학자들이 토론하고 다룬 일들이 전해지고 있고, 현재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 같다.

둘째, 원래 남명 조식 선생이 지은 신도비 내용과 후일에 개립된 비문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2 가. 구암선생이 남명선생에게 자신의 부친의 신도비 비문을 부탁하자 남명 선생이 신도비 비문을 짓고서 구암에게 글을 주면서, 이 글을 퇴계에게 보여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여 보라고 하였다.  
 ● 구암은 퇴계에게 남명의 말을 전하면서 비문을 전해 주었다.  
 ● 퇴계는 남명이 지은 비문 내용 중에서 12군데, 수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퇴계집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에는 퇴계가 수정해야 하는 연유를 자신의 학문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는 남명의 글에 수정을 하는 기준은 서로의 학문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고, 자신의 학문 세계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글을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남명의 글이 틀린 내용이 있어 수정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는 남명의 신도비 비문에 나의 생각을 말하였을 뿐이고 비문은 남명이 글이라고 하였다.<sup>2)</sup>

나. 남명이 지었던 신도비는 어떤 글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현재 남명집에는 퇴계가 교정을 보았던 비문이 남아 있어 이를 참고하여 유추할 수밖에 없다.  
 또한 퇴계가 수정을 하면서 수정하기 전의 문장이나 단어들을 이리저리하게 고치면 어떠하겠는지의 기록이 있으니, 원래 남명의 글을 복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그러하다 하더라도 원래의 신도비를 찾기 전에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내용들은 분량상으로 기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여기에 대한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sup>3)</sup>

만약 남명이 지은 비문의 내용이 후일에 개립된 내용과 같다면, 후일 굳이 같은 내용을 개립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명이 지은 비문과 현재 남아 있는 묘비문은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 묘비문과 남명집에 실려 있는 비문의 내용은 같다. 남명집에 기록되어 있는 신도비 비문이 왜 개립된 비문과 같은 지는 알 수가 없다.

사천이씨문중에서 원래의 비를 묘역에서 보았다는 증언이 있기에 몇 차례 발굴조사를 하였으나, 아직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만약, 원래의 신도비를 찾게 되면, 우리나라 성리학 지성사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3 남명 이후의 성리학자나 오늘날 남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중에 일부가 남명을 옹호하기 위해 구암을 폄훼하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 퇴계가 남명의 신도비를 수정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정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의 일례로, 구암이 남명에게 구암의 부친 이담에 대한 신도비를 작성하여달라고 부탁한 이유를, 퇴계보다 남명의 학문을 높게 보았기 때문이라는 글을 쓴 연구가도 있다. 그는 남명이 구암에게 신도비 글을 주면서 퇴계를 찾아가서 교정을 보아달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퇴계에게 남명의 비문 수정을 요구하였고, 퇴계는 남명의 글을 수정하여 주었다고 하였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문이다. 이 연구가는 구암을 폄훼하고 퇴계를 폄훼하였다. 오직 남명을 현창하기 위해 구암과 퇴계를 비난하였다.

퇴계의 비문수정이 400여 년간 퇴계와 남명의 후학들에게 논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남명의 제자들은 구암을 비난하였다. 여기에 하종악후처의 일도 보태어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남명 후학들은 '진주읍부옥사'라고 말하면서 하종악의 후처를 읍부로 폄하하여 옥사가 일어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분명하게, "진주유생옥사"라고 명시하여 하종악의 집을 부순 일로 문제가 된 남명의 제자들의 옥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헌부에서 이를 책임 수사한 사람은 고봉 기대승이었다. 그는 현재로서는 검찰총장의 직위였다.

1) 남명집, 2000, 남명학연구원출판부, 소천서당소장 634~635쪽  
 2) 퇴계집 II 卷李剛而 3) 이은식, 이담신도비 연구 2022. 사천문화연구소.



# 추모원(追慕園)을 소개합니다.



성군진사공파 제25세 대곡문중 회장 이 인 찬

사천시 사남면 능하마을 우측 이구산 남쪽 양지바른 산자락에 사천(동성)이씨 성군진사공파 파조 11세조 휘 藩(번) 후손 묘원이 있다. 2020년 1월 5일 첫 삽을 뜨는 기공식 이후 공사 중 민원 제기로 인하여 공사 중단 등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지만 아담한 추모원(追慕園)을 2020년 6월 16일 완공함으로써 와비석 기준 66기 총 136분의 조상님을 한 자리에 모셨으며, 2020년 9월 20일 뜻깊은 奉行祭(봉행제)를 올림으로써 마무리하였다. 이후 와비석 기준 5기 총 8분의 조상을 더 모셨으며, 점차 추모원에 모실 조상님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가족 및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에서 고도의 산업화로 생활상이 바뀜에 따라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고 핵가족의 모습이 주류의 가족 형태가 되었다. 오직 직계 존비속만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시향 성묘(벌초) 때에는 차츰 참여 인원이 줄어들어 조상 묘소 관리에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 후손들은 조상의 세거지와 묘소를 찾지 못하는 큰 불효의 경험을 갖고 있기에 조상의 묘소들을 한 곳에 모으지 않으면 실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다. 추모원의 조성을 통하여 이러한 걱정을 떨치고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 수 있어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다만 조성이 끝나고 나니 추모원의 협소한 면적, 불편한 진입로 등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고치고 개선토록 할 것이다. 이 추모원은 후손들에 숭조 정신을 기를 수 있게 하고 화합과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자랑스럽고 빛나는 유산으로 길이 보전될 것이다. 매년 4월 한식일과 음력 8월 첫째 주 일요일에 문중 종인들은 성묘하고 묘지관리를 하고 있다. 추모원 조성 후 해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점으로 보고 있다. 崇祖尙門(숭조상문) 忠孝傳世(충효전세) 宗誼敦睦(종의돈목)의 종훈을 되새기며 추모원 조성이 종족의 혈육으로서 조상이 베푸신 유덕을 알게 하고, 후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단합된 힘으로 사는 데 기여하여, 가문의 영광과 번영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추모원(追慕園) 전경

# 구암 이정선생 묘역 성역화 사업 결과 龜巖 李楨先生 墓域 聖域化

우소재공파 대산문중(迂疎齋派 岱山門中)

## 1. 구암 이정 선생

사천(동성)이씨 11대(代) 휘(諱)는 정(楨), 자(字)는 강이(剛而), 아버지의 휘는 담(湛), 5대조의 휘는 자(軫, 교도공)이시고, 아드님의 휘는 응인(應寅), 큰 손자의 휘는 호변(虎變)으로 우소재공파의 파조이시고, 작은 손자의 휘는 곤변(鯤變)으로 백인재공파의 파조이시다. 공은 536년(중종31) 진사로 별시 문과에 장원한 후 성균관 전적, 예조정랑, 선산부사, 청주목사, 우부승지, 형조참의, 좌부승지, 병조참의, 대사간, 호조참의, 예조참의, 경주부윤, 순천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 2. 구암(龜巖) 선조님의 유택(幽宅)을 봉수(奉修)하며

(묘역 성역화 사업 보고서 중 대종회 회장 이영섭의 인사말에서)  
구암(龜巖) 선조의 유택(幽宅)이 허물어지고 보물 같은 향로석(香爐石)을 도난당하는 등 후손들이 제대로 묘역 관리를 잘못함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구계서원장이은식 박사는 묘역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받는 공이 지대하였고, 문화재로 지정되자 참배객이 많아져 묘역 정비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묘역 성역화 계기가 되었으며, 박정열 도의원과 진주시청 관계자들의 도움, 종인 독지가의 협찬 등으로 봉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종회 총무국장은 동분서주하며 자금을 조달하느라 큰 노력을 한 결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 3. 성역화 사업 추진 경과

- 2019: 이정선생묘소 보수정비 묘비제작 건립 관련하여 사업계획 대종회(문중)에 보고, 본사업 추진기로 결정.
- 2019: 본 사업 보수사업 예산, 경상남도(가야문화유산과) 진주시(문화예술과) 지원 건의.
- 2019: 도난향로석복원 추진에 대해 대종회에서 전문업체선정, 「금강조각연구소」, 김해국립박물관추천.
- 2020: 2020년도 제2회 경상남도사적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심의 자료 「진주이정묘역 현상변경묘비허가신청」 결과, 「허가사항향로석복원」 결정. (2020. 3. 31일자)
- 2020: 문화재청 지정문화재 전문설계업체(미추홀), 소요사업비 8,000만원 책정, 경상남도에 보고, 예산심의결과 예산 5,500만원(도비 4,000만, 시비 1,500만) 향로석 복원 사업비 포함 확정.
- 2021: 이정선생묘소 전체 배치도(평면도) 진주시 확정, 사업설계 업체 엠티 결정.
- 2021: 이정선생묘소 설계심의 현지조사. (경남도관계공무원, 문화재위원, 진주시관계관, 문중대표)
- 2021: 이정선생 묘비 제작을 위해 묘갈명 원본확인자 선정,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 이상필. (전 경상남도문화재 위원)
- 2021: 이정선생 묘소 보수 및 묘비 제작 건립공사 현장 설명회 개최. (대종회 회장, 부회장 등 문중대표, 이상필 교수, 묘비 향로석제작업체대표 등 참석) 묘비제작 계약 4,500만원(협찬금).
- 2021: 이정선생 묘비건립에 따른 행정업무 절차-경상남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영향 검토)허가, 도시계획심의 및 개발행위허가, 산지허가.
- 2021: 이정선생 묘소 보수업체 기공건설 9. 13착공, 10. 28완공.
- 2021: 이정선생 묘비 제작건립비 모금, 11월 4,500만원 확보. (사업 완공)
- 2021: 이정선생 묘역 성역화 준공 및 비 건립 제막식. (2021년 12월 25일)

## 4. 구암(龜巖)선생 묘갈명을 다시 세우는 의미

(묘갈명 원본확인자 이상필 교수의 사업 보고서 서문)  
구암(龜巖) 이정(李楨, 1512~1571) 선생은 사천(泗川)이 낳은 뛰어난 학자요, 유능한 관료로서 당대에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영남 지역의 우뚝한 인물로 전해오고 있다. 선생의 묘소는 원래 사천 구산사(龜山祠) 아래 선영에 모셔졌으나 임진왜란 때 화를 입어 1658년에 다시 진주의 실봉산(實鳳山) 아래로 모셔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묘갈명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면서 뒤에 정치적으로 남인(南人)의 영수(領袖)가 되었던 양천인 미수(陽川人 眉叟) 허목(許穆, 1595~1682)에 의해 찬술된 것이다. 전면의 전서(篆書)로 된 비제(碑題) 또한 미수의 친필 글씨로 그 유명한 미수체(眉叟體)다. 묘갈명의 4면(四面)에 쓰여 있는 작은 글씨는 당대 영남 최고의 명필로 알려진 완산인(完山人) 두암(斗巖) 전영(全榮, 1609~1660)의 솜씨다. 이 묘갈은 사암(砂巖)으로 이루어진 데다 세워진 지 이미 350년도 더 지났으므로 하단의 글씨는 탁본으로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후손들이 다시 세우기로 결의하면서 신도비(神道碑) 형태로 크게 하여 묘소 입구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묘갈명의 내용 확정을 위하여 불녕(不佞, 문장에서 자기를 겸손히 이르는 말. - 편집자 주)을 찾아왔다. 이는 불녕(不佞)이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묘소를 찾아 정밀히 조사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이에 묘갈명(墓碣銘)을 탁본(拓本)한 자료와, 미수 '기언(記言)', 정두(鄭斗) 소재(所載) 선생의 묘갈명(墓碣銘)과 행장(行狀) 등을 근거로 하고 묘갈명의 양식에 따라 19조목에 걸쳐 자세히 논급한 뒤에 그 내용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신도비 형태의 구암 묘갈명(墓碣銘)은 구암선생의 학문 내용과 도덕수준을 다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수 허목의 문장과 미수체(眉叟體) 전서(篆書) 비제(碑題)를 후세에 뚜렷이 알린다는 의미도 있다. 아쉬운 점은 두암 전영의 글씨를 재현하지 못한 것과 본문 글씨를 컴퓨터 글씨로 새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구비(舊碑)에 새겨진 몇 글자를 이정(釐正: 다시 정리하여 바로잡아 고침)한 것 역시 새로 세우는 중요한 의의 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25일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 이상필(李相弼) (전 경남도문화재 위원)

## 5. 구암 이정 묘 보수



묘소 전의 모습

묘소 후의 모습

묘 안내 시설

## 6. 향로석 복원



도난 전 향로석

도난 후 위치

향로석 모형도

복원된 향로석

## 7. 묘비 제작 건립



2005년도 묘비 모습

현 위치의 모습

신규 비석 모형도

비석 건립된 모습

(설치장소 : 묘소의 경계로부터 약 210m 위 임도 가장자리)

[묘비의 전문(전서, 미수체) 원본의 탁본]  
通政大夫 守 慶州府尹 慶州鎮 兵馬節制使 李公之墓  
통정대부 수 경주부윤 경주진 병마절제사 이공지묘

수(守)의 의미 : 관계(官階)가 낮은 사람을 높은 직위(職位)에 앉혔을 경우(境遇)에 관계(官階)와 관직(官職) 사이에 넣어서 부르던 말. 여기서는 정삼품(正三品)인 통정대부(通政大夫)인데 종이품(從二品)직인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었으므로 통정대부 수 경주부윤(通政大夫 守 慶州府尹)라고 서칭(書稱)하게 됨.



## 8. 묘갈명과 그 서문(墓碣銘并序, 미수 허목)

[뿌리 6호 5페이지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구비(舊碑)에 새겨진 몇 글자를 다시 정리하여 바로잡아 고쳤고, 비문의 후반부 내용 중 묘의 위치를 비봉산(飛鳳山)에서 실봉산(實鳳山)으로 수정하였다. - 편집자 주]

## 9. 성역화 묘지 안내 표지판

진주 둔티산 햇맞이 공원 측 동방향 50m 삼거리, 임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음.

## 10. 묘갈명 해설 시설물 설치

비석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음.

## 11. 성역화 사업 진행 중 묘소 현지에 참석한 주요인사



- ▶ 대종회 회장 이영섭 (왼쪽에서 세 번째)
- ▶ 우소재파 문중 대표 이오수 (오른쪽에서 두 번째)
- ▶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 이상필 (오른쪽에서 세 번째)
- ▶ 대종회 부회장 이형환 (왼쪽에서 두 번째)
- ▶ 금강조각연구소(만경문화재) 대표 윤태중 (왼쪽에서 첫 번째)
- ▶ 우소재파 문중 총무 이덕중 (오른쪽에서 첫 번째)

# 『泗川(東城)李氏史 總覽』 발간 후기

대중회 선조유적보존연구위원회 위원 일동

2020년 2월 대중회 선조유적보존연구위원회(위원장 회장 이선영)는 우리 씨족의 문중사인 『泗川(東城)李氏史 總覽』을 발간했다. 조원사(肇源祠) 서고와 캐비닛에 보존된 족보, 「수서시」, 「구암집」, 「구암연보」, 「상계사연구지」, 「씨족사대요」 등의 문헌은 문중사 초안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었으며, 대중회 고문인 영규 위원이 제출한 시조사우 조원사 봉건기록, 구암선생 영정 제작기록, 구계서원 분쟁과 합의기록 등은 문중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합천·거창화수회에서는 1962년 화수회 창립총회와 선조의 화수회 서문이 보존되고 있어서 살아있는 문중사를 보는 듯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종보 “뿌리”에 실린 글과 사진에서부터,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대중회 이사회 및 총회 회의서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책을 만드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되었다.

이 책은 성씨의 유래와 씨족문화의 변천(I), 사천(동성)이씨의 성·본과 종파(II), 선조 사적록·문행록·효행록(III), 대중회 개관(IV), 파조문중별 내력(V), 수서시첩 개요(VI), 구암집 개요(VII), 구계서원(VIII), 구암학 연구동향(IX), 시조사우 조원사 봉건(X), 구암 이정선생 주요 사록(XI), 〈부록〉 등이다. 부록의 말미에는 사천(동성)이씨사의 연표(年表)와 주요 사적(史蹟) 및 인물 색인을 붙여 문중사를 찾아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흩어져 있던 문중사 문헌을 한 권으로 모아 체계화한 것이다.

대중회 개관과 파조문중별 내력을 제외한 나머지 문중사는 다행히 선조께서 남긴 기록이 있었기에 후손이 대중회 전사(前史)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없었다면 문중사를 쓸 수 없는 일이었다. 1973년 대중회가 창립된 이후 선조의 유적 보존·연구는 「구암연보」·「상계사연구지」·「씨족사대요」 등의 발간, 구암 선조 묘소·구암사비 문화재 지정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경주에 있는 서악서원과 「부유구암이정거사비」, 경주 감포에 있는 이견대의 구암 이정시(詩) 현액, 순천에 있는 옥천서원과 「부사이정선정비」 등도 후손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아직도 일부 파조문중에서는 선조께서 남긴 유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원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파조문중별 자랑스러운 후예(後裔)를 이번 기회에 발굴하고 기록하여 다음 세대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빠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번역은 시대와 번역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구암총서』가 발간되면 『구암집』에 수록된 구암 선조의 행장과 주요 사록(史錄) 등의 번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아서 그에 맞게 수정(修訂)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 유식한 할아버지



우소재공파 제25세 이영춘

코로나19라는 괴질환이 수년간 포근했던 우리의 생활 리듬을 깨뜨리고 마음과 육신을 무참히 짓밟았지만 그래도 웃음을 간직한 삶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내일의 희망을 영글게 하는 등불이 되어주길 희망하면서 문득 젊은 시절 한적한 시골 등산길에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

등에는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숨을 헐떡이며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데 길옆에 있던 쪽문에 한문으로 ‘多不有時’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많고, 아니고, 있고, 시간?’ ‘시간은 있지만 많지 않다는 뜻인가?’

‘누가 이렇게 심오한 뜻을 문에 적어 놨을까?’

분명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고매하신 분일거야~~

‘도사 같은 그 분을 만나봐야지.’

하고 문 앞에서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니 옆집에서 런닝 차림의 할아버지가 나오셨다.

“어이~ 거기서 뭐하는 거야?”

“아, 예~여기 사시는 분을 좀 만나 봐려고요.”

“옹? 거긴 아무도 안살아.”

“네? 이 한자성어를 적으신 분을 좀 만나 봐려고요.”

“그거? 그건 내가 적은거야.”

“그러세요? 한번 뵈고 싶었는데요. 할아버님, 여기가 대체 무슨 문 입니까?”

“여기? 별거 아니야. 화장실이야.”

“네? 화장실이요? 여기가 화장실이라고요?”

“아, 이거? 참 내! 다불유시(W.C)야. 多不有時.....번소.”

“다불유시 짧은이가 그것도 몰라?”

“에~이 참 내.”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총명한 그 할아버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그리워진다.

# 時有不時

우소재공파 제25세 이영춘

## 어진 삶



백인재공파 제25세 이형환

학식과 덕행(德行)이 높으며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여 인정이 많고 슬기로운 사람을 군자(君子)라고 한다면,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배운 사람보다도 더 인간적이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配慮)할 줄 아는 사람, 가까운 데서 시작하여 먼 데까지 사랑을 베풀어 갈 수 있고 정의를 위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예(禮)를 실천하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와도 피하지 않고 정도(正道)로 해결하는 사람, 고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재수가 있으면 덕(德)을 생각하고 자신을 반성할 줄 알며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군자(君子)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알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1. 군자의 세가지 두려운 것을 살펴보면, 공자(孔子)께서는 첫째 천명(天命)이요, 둘째 대인(大人)이며, 셋째 성인(聖人)의 말씀을 두려워 한다고 했다. 간사하고 도량이 좁은 사람을 소인(小人)이라 하며,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하는 것이 없기 마련이고, 대인(大人)을 업신여기고 성인(聖人)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대인(大人)이란 ‘인격을 갖춰 덕망(德望)있는 사람’, 즉 스스로 잘못을 짓지 않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대인이 아닐까 싶다.

성인(聖人)은 대인보다 완벽한 사람으로 ‘자신의 인격을 닦아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사람’, 세상의 문물과 제도를 정하고 예(禮)와 악(樂)을 제정하는 것도 성인의 몫이라고 본다.

천명을 두려워할 줄 알면 대인과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군자(君子)도 미워하는 것은 ●남의 나쁜 점만을 말하는 사람,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 ●용맹하면서 예가 없는 사람, ●과감하면서 팍팍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베푸는 마음과 나이의 무게만큼 더 넓어지고 깊어지려고 노력하면 미워하는 마음보다 남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게 될 것이다.

3. 군자(君子)는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지만, 스스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느슨한 생각으로 갖는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세상이 변하면 그에 따라 갖추어야 할 능력도 많아진다.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나의 됴됨을 스스로 다듬어서 “어진 사람”이라는 말(言) 한 번쯤 들어보고, 시속(時俗)에 따라가는 현명한 선택을 하자.

## 참으로 고마우신 편지

(‘뿌리’ 원고청탁에 대한 답장)



합천군 봉산면 양지1구 이형수

이영근씨 보내주신 서신 잘 받았습니다. 종사일에 열중하시니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래토록 (대중회)행사에 나이가 많아서 참가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금년에도 종종 일 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들 드리면서 펜을 놓겠습니다.

[답장을 드립니다. - 편집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구암 할아버지의 시 한편을 올립니다. - 편집자

제목 : 우연히 흥이 나서[偶興] [기유년(己酉年, 1549)]

들나물 막 향기롭고 가을보리 무성하니 이 한 봄 좋은 일이 촌옹에게 돌아가네. 우연히 손님 이르고 시내 남쪽 지나자니 대숲 밖의 복사꽃도 또한 붉게 피어났네.

이영근씨 보내주신 서신 잘 받았습니다. 종사일에 열중하시니라고 수고가 많습니니다. 오래토록 행사에 나이가 많아서 참가못하고 죄송합니다.

금년해포 소중일 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서신으로 인사드리면서 펜을 놓겠습니다.

竹\*偶\*一\*野\*  
外\*然\*春\*菜\*  
桃\*攜\*勝\*初\*  
花\*客\*事\*香\*  
亦\*溪\*屬\*宿\*  
放\*南\*村\*麥\*  
紅\*過\*翁\*芄\*

# 창녕조씨가 고부정려각(昌寧曹氏家 姑婦旌閭閣)



우소재공파 제25세 이영근



사천읍에서 북쪽으로 5km지점에 있는 두량3리 마을에는 임진왜란 때 정절을 지키려다 왜군에게 목숨을 잃은 고부의 정려각(旌閭閣)이 있다. 정려각의 안내문 내용을 보면, 임진왜란당시 왜적에게 목숨을 잃은 昌寧人 參奉 조흠(曹滄)의 처 東城 李氏와 며느리 安東 權氏의 孝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려각(旌閭閣)이다. 두 사람은 임진왜란 중, 왜적이 잡아가려 하자 성을 내고 옥을 하며 따라가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왜적이 칼로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자 며느리가 자신의 몸으로 가로 막았으나, 결국 두 사람은 왜적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며느리의 義烈에 감동한 왜적은 위인지부효부(爲人之婦孝婦) 위인지녀효녀야(爲人之女孝女也) '어떤 사람의 며느리면 孝婦이고, 어떤 사람의 딸이면 孝女이다.'라는 글을 쓴 팻말을 그 옆에 세워두었다. 왜란이 끝나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정에 알려지자 임금은 정려(旌閭)하여 귀감으로 삼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옛 사천군지와 사천읍지에 기록되어있으며, 예조록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정려각안에는 두 사람의 정려(旌閭)현판과 중수사실을 기록한 세 개의 중수기 현판이 걸려 있다.

정려각 안에 걸려 있는 세 종류의 중수기를 바탕으로 정려각의 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란이 끝나고 조정에서는 동성이씨와 며느리 안동권씨의 효열을 정려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때 정려각이 지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정려각이 세워진지 300여년이 흐르며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치다가 1898년 후손인 조영국과 조윤국이 다시 수리하고 색깔을 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901년 겨울에 조카 조기권을 시켜서 허유와 거창에 있던 광종석에게 중수기(重修記)를 부탁하였다. 이때 지어준 중수기가 현재 정려각 안에 걸려 있는 현판에 새겨져 있다. 그중 광종석의 중수기는 1980년에 후손들이 비석에 새겨 정려각 밖에 세웠다. 이를 통해 볼 때 정려각을 언제 최초로 지었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수기를 통하여 볼 때 1898년 중수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의 기록으로는 1898년에 있었던 중수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1901년에 중수기를 부탁하였으며 이를 1925년에 뒤쪽에 걸려 있는 '열부참봉조흠지처유인동성이씨지려(烈婦參奉曹滄之妻孀人東城李氏之閭)'와 '효부학생조대번지처유인안동권씨지려(孝婦學生曹大藩之妻孀人安東權氏之閭)' 현판과 함께 새겨서 걸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걸려 있는 중수기 중에 조석우의 중수기가 가장 빨리 지어진 것으로 보이니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조석우의 출생 연도를 볼 때 허유와 광종석의 중수기보다 조금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석우의 중수기를 현판으로 제작하여 설치한 것도 역시 1925년이다.」



## 열부이씨 효부권씨 정려기 역문(烈婦李氏 孝婦權氏 旌閭記 譯文)

옛날 용사(龍蛇)의 난에 사천(泗川)은 적의 소굴이 되고 화를 당함이 더욱 심해지자 모든 사서인(士庶人)들이 가솔(家率)을 이끌고 도망하여 숨은 자를 모두 금수처럼 잡아가두고 잡초처럼 베기가 얼마나 악독했는가. 그 때에 참봉(參奉) 조흠(曹滄)의 아내 이씨와 그의 아들 대번(大藩)의 아내 권씨가 있었는데, 적들이 찾아서 잡아가려고 하자 며느리 권씨와 시어머니 이씨가 성을 내고 옥을 하며 굴복하지 않자 적들이 시어머니에게 칼을 들이대자 며느리가 가로막으며 죽기를 다하다가 마침내 함께 죽었다. 적들이 그 의로움에 놀라서 시신 옆에 쓰기를 '어떤 사람의 며느리면 효부이고, 어떤 사람의 딸이면 효녀이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몰라서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정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두 사람에 대해 정려(旌閭)하도록 하였다. 지금 예조에서 기록한 것과 사천현지(泗川縣誌)에 살펴볼 수 있다. 정려각을 세운지 이미 300년이 되면서 수차례 무너지고 수리하였는데, 금상(今上: 고종) 무술년(戊戌年: 1898) 후손인 영국(寧國)과 윤국(倫國) 등이 또 수리하고 유악(勳壑)을 칠하였다. 4년이 지난 신축년(辛丑年: 1901) 겨울에 조카 기권(基權)을 제창(濟昌) 골짜기로 보내어 나에게 그 자취를 적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문장이 부족하니 어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단지 도주(島醜)가 바야흐로 큰 나라에 봉시(封豕)가 되어 위살(威殺)하여 욕심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에 일역(一域)이 모두 신하는 충을 위해 죽고, 자식은 효를 위해 죽고, 며느리는 열을 위해 죽는 자 종무(鍾武)가 서루 이어져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으니, 기쁘기는 추환(芻豢)의 단맛과 같고, 나아가기는 임석(衽席)의 따듯함과 같지 않음이 없었다. 이는 그것이 하늘의 법도를 부지(扶持)하고 사람의 기강을 지탱하여 세움으로써 마침내 우리 국가 중흥의 운명과 영장(靈長)의 복을 돕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간혹 한 부인이 남편에게 목숨 바치기를 시부모에게 한 것처럼 한 것을 두고 일가(一家)의 치(治)요 일신(一身)의 결(潔)이라고 하지만 이는 저 강상의 중함이 천지(天地)와 민인(民人)과 종사(宗社)의 큰 근본(根本)과 큰 명맥(命脈)에 고르게 하여 충신 효자가 그 임금과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하고 공적을 이루는 것과 조금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살피지 않은 것이다. 대저 그러한 즉 이 이씨와 권씨 고부는 서로 손을 잡고 의(義)에 나아가기를 집으로 들



아가듯 편안히 하였으니, 어찌 함부로 동래에 있는 충렬공(忠烈公) 송상현(宋相鉉)과 금산에 있는 문열공(文烈公) 조현(趙顯)의 자취보다 쓸쓸하다 할 수 있겠는가? 숲 아래 한 줄의 기운은 진실로 미친개의 간담을 떨게 하고 나라의 풍기를 진작시키기에 충분하다. 그가 죽은 날이 태어난 해와 같으니 아! 거룩하도다. 이것이 그렇게 된 까닭을 말하여 오늘에 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에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이 글을 쓴다. 포산인 광종석<sup>1)</sup>쓰다.

또한 마을 입구에는 이들의 정려를 기리는 보호수가 심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마을에서 나갈 때나 돌아올 때는 나무 앞에서 절을 올리고 지나갔다. 이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로 수령은 400년이 넘었으며, 1982년 사천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東城 李氏 할머니와 安東 權氏 할머니의 묘소는 사천읍 장전리 어정산 자락의 한 무덤에 동영(同塋)으로 안장되어있다. 고부간의 갈등이 빈번한 요즘 세대에서 보면 왜적의 칼날 앞에 정절(貞節)과 정리(正理)를 지키려다 하나 뿐인 목숨을 버린 할머니들의 정신세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왜적도 얼마나 감동하였으면 이 일을 세상에 알렸을까? 두 분 할머니의 처연(淒然)했을 그날을 상상해보면서 거룩하신 행적을 잘 보존 관리하여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후손들도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창녕조씨(昌寧曹氏) 문중에서는 나라에서 세워준 정려각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껏 잘 관리해 왔다. 그러나 4백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1898년 중수 이후 백년을 훌쩍 넘기다 보니 기와가 깨어지고 단청이 바래고 낡아서 정각이 허물어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문중에서 큰돈을 들여 깔끔하게 단장하여 다시 중수했다. 그리고 중수기는 다음과 같다.

## 고부 효열각 중수기(姑婦 孝烈閣 重修記)

왜적을 꾸짖으며 貞節(정절)을 지킨 姑婦(고부)와 왜적에 맞서 시어머니를 보호하다 殉節(순절)한 효부 이 분들보다 더 칭송받을 분들이 어디 있으랴, 장하시도다. 창녕조씨 사천둔암문중의 고부여, 이 효열각은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목숨을 잃은 두 여인의 孝烈(효열)을 기리는 정려각이다. 한 사람은 참봉 조흠(曹滄)의 아내인 동성이씨(東城李氏)이고 또 한 사람은 며느리이자 조대번(曹大藩)의 아내인 안동권씨(安東權氏)이다. 두 분은 계사1593년에 왜적이 잡아가려 하자 화를 내며 따라가지 않았다. 이에 왜적이 칼을 뽑아 시어머니를 해치려함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로막아 항거하니 왜적이 두 사람을 모두 죽였다. 왜적은 두 사람을 죽였으나 며느리의 효심(孝心)에 감동하여 어떤 사람의 며느리이면 효부이고 어떤 사람의 딸이면 효녀이다. 라는 팻말을 주검 옆에 세웠다.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정에 알려지자 나라에서 정려각을 세웠다. 이 효열의 이야기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와 예조록(禮曹錄)사천읍지(泗川邑誌)에 기록되어있다. 이 효열각은 十七세기 초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그 뒤 300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차례 보수를 해왔다. 무술1898년에는 후손인 영국(寧國)과 윤국(倫國)이 보수를 하고 단청을 하였다. 신축 2021년 5월에 조흠(曹滄)의 13세손 규연(圭然) 규윤(圭允)과 14세손 우종(宇鍾)이 문중의 뜻을 모으고 문화재전문위원인 고영훈(高永勳)교수의 자문을 받아 전면적인 보수를 하였다. 지붕을 새 기와로 단장하고 단청을 새로 하였으며 효열각주위에 화강암을 깔끔하게 깔고 주물로 된 울타리를 세우고 비석을 정려각 옆에다 세워 효열각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기품 있게 중수된 이 효열각이 창녕조씨 사천둔암문중의 보물로서 길이길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규연(圭然)옹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이 중수기를 삼가 짓다. 신축2021년 5월20일 경성대학교 명예교수 문학박사 달빛 조규태(曹圭泰) 글을 짓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전초대작가 한메 조현판(曹鉉判) 글씨를 쓰다.

그러나 이제 위 어른들도 세상을 떠나고, 젊은 후손들은 대부분 객지에 나가고 없는 현실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상님의 산소에 별초와 성묘를 하는 정겨운 모습도 점차 사라져 갈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다 보면 이 정려각도 어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걱정이다. 이렇게 두량 3리 정려각(旌閭閣)도 이제는 한 문중의 현안(懸案)이 아닌, 우리지역의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 사천군지(1990.8.30), 사천읍지(2010.12.30)  
사천향교사(2017년), 창녕조씨대종보(2018년)

1) 포산인(苞山人) 광종석(郭鍾錫)(1846~1919) 유학자. 독립운동가. 한말에 호남의 전우(田愚)와 쌍벽을 이룬 대표적 유학자이며, 파리장서의 민족대표. 본관은 포산(苞山). 지금의 현풍(玄風). 자는 명원(鳴遠), 호는 면우(峴宇). 1919년 3·1운동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정문의 호소문을 작성했다. 이로 말미암아 2년형의 옥고를 겪던 중 병보석으로 나왔으나 이내 죽었다.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 나의 발자취 그리고 기행문



성균전사공파 제25세 대중회 고문 **이영규**

## 1. 저 태양을 향하여 한 보 더 전진하기 위하여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인류가 어느 때 어떠한 형태로 이 지구상에서 태어났는지 수억 년 전부터 수십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생명체는 바로 인간이다. 여기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다음의 걸어온 발자취와 사연을 열거하는 한 사람이 있다.

### 1) 청년기

이 사람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1941년도에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다. 1954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기생은 중학교에 갔지만, 본인은 소 먹이고 가마니도 짜기 시작했다. 4km 이상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다음 날 사천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여 부모님의 일손을 도왔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친구(대학교 총장 역임)가 중학교에 가자고 권유함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일 년 동안 집안을 도왔다.

졸업 1년 후, 1961년도 친구가 다니는 대학교 공과 대학 토목과에 입학하여 2년을 다니던 중 영장이 나와 병역 의무를 하기 위하여 1962년 8월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육군 공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65년 4월에 제대하여 고향인 사천의 한 공사장에서 돈벌이 일을 하였다. 1965년 11월 사천군 건설과 토목분야에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립공원 정문 앞

### 2) 중년기

1979년 5월까지 사천군청에 근무하다가 1979년 5월 하동군으로 발령되어 농지계장으로 근무, 다시 1981년 사천군으로 발령되어 토목계장, 농지계장, 수도계장으로 근무하였다. 1996년 5월 거제시 과장요원으로 발령되어 도시과장, 수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년 12월 공로 명예퇴임하였고, 상훈은 군수 6회, 시장 3회, 지사 1회, 내무 장관 5회, 국무총리 1회, 감사패 2회 수상했다.

경력으로는 초등학교 동창회장 2회, 사단법인 이사, 회장 1회, 대중회회장 1회, 구암선생 연구원, 문화원 위원으로 역임하였고, 서적으로는 '시조사우건립 기록집', '구암선생 회고록', '구암선생영정 제작록', '맑은 서원이 되기까지' 등이 있다.

### 3) 장년기

이 시기에 '구계서원과 최씨집안의 80년간 분쟁 해결'과 '조원사 건립에 대한 기록'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한 일도 많지만 기록은 생각한다.

본인은 딸 5자녀를 두었고, 결혼하여 모두 잘 살고 있다.

첫째는 부모가 있는 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딸 쌍둥이를 낳아, 미국 이모, 일본 이모,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유학하여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외손녀 둘은 유학 생활하면서 등록금과 학비는 이모 둘과 외할아버지가 지원하였고, 생활비 숙식비는 본인들이 아르바이트 및 장학금으로 충당하였다. 지금은 쌍둥이 외손녀 둘 다 미국 대기업과 일본 대기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중국 장가계, 원가계

둘째 딸은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다.

셋째 딸은 서울 아산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당시, 친구의 소개로 한국 카이스트 대학교 졸업 예정인 사람과 결혼했다. 졸업시에 대통령상,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미국의 대기업인 IT 정보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자녀 중 첫째 딸은 미국 뉴욕소재 명문사립대학에서 우등생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

넷째 딸은 서울 하나투어 관광회사에서 과장직까지 근무했다.

다섯째 딸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의 공기업에서 연을 맺어 부부가 같이 근무하고 있다.

본인은 80세 이상을 살아오면서 조상의 은덕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는 조원사를 여러 종인과 함께 건립, 구계서원 분쟁해결, 조상 제향에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중국 지린성 연변 백두산 가던 중 방문 운동주 동상

### 4) 노년기

우리 문중은 2000년 이후 문중의 정가 사회 진출한 사람을 보면 회장 1명, 중앙 관료 중 3급이 2명, 판검사 3명, 대학교수 3~4명, 교장 4~5명 정도이다. 중앙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넓은 곳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기 쉬워질 것이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마음을 먹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도록 권하기 위함이며, 문중에서도 많은 출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인은 살아오면서 퇴직연금으로 살아가는 데 불편은 없었다는 것을 소개하며, 문중 여러분도 보험금 중 직장보험이든 국민보험에 꼭 가입하여 노후에 조금이나마 편히 지내시기를 간곡히 권유드리며, 각 가정이 행복하시고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를 바란다.

## 2. 뿌리공원을 찾아서

2019년 개천절을 맞아 '사단법인 대한사랑'이 주최하는 '개천문화국민대축제'에서 낭독된 '대한역사광복군출정선언문'에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9천년 전에 환인 천제께서 인류의 첫 나라 한국을 세우셨다. 이 한국을 계승하여 6천년 전에 환웅 천황께서 한민족사의 첫 나라 배달을 세우셨다. 우리는 한국 배달의 홍익인간 정신을 이어받아 일찍이 삼신 문화, 광명문화, 제천문화를 연 인류 창세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백, 수천 년간 왜곡, 날조된 역사에 휘둘려 역사와 문화를 잃어버렸다. 우리의 뿌리도, 정신도, 영혼도 잃어버렸다. 중국은 오랫동안 중화사관을 내세워 세계사의 중심인 양 역사를 조작했다. 오늘날 다시 동북공정으로 패권주의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일제는 우리 사서를 비롯한 수십만권 문헌을 강탈 소각했다. 역사 왜곡 앞잡이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사'를 꾸며 내어 빛나는 역사를 초라한 거짓 역사로 바꿔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할 한민족의 혼은 무엇인가?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배달민족이며 홍익인간의 사상을 지니고 살아왔다. 동방예지국으로 "효"를 중요시 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가정환경은 그러하지 않다. 세상은 너무나 변해 버렸다. 젊은 처녀 총각들은 결혼도 하지 아니 하려하고, 또한 결혼을 하여도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 하며, 부모 형제간의 우애도 없는 세상으로 변해버렸다. 이는 "효"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런 시기에 나는 회장님께서 뿌리공원에 내력을 알리고 함에 따라 2019년 10월 30일 뿌리공원을 찾았다. 아침 일찍이 밥을 먹고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갔다. 대전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여 택시를 타고 대전광역시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하차하였다. 주차장은 승용차와 대형차를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큰 주차장이다. 차에서 앞을 보니 하천인 유등천의 물이 흐르고 있다. 다리를 건너 뿌리공원 입구에 도달하게 되었다. 입구에는 큰 건물이 있는데 사무실과 편의점이 있다. 뿌리공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1997년 개장하였으며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조성된 전국 유일의 "효" 테마공원으로서 성씨 조형물과 한국족보박물관, "효" 산책로, 수변무대, 야간경관조명캠핑장, 잔디광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진 체험학습의 산 교육장으로 되어 있다.

뿌리 공원 맞은편(강 건너편)에는 식당과 휴식 공간의 시설도 있으며 식당에는 단체 손님을 위하여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현재 뿌리공원 내에는 성씨별로 조형물이 246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가 조형물 설치하는 불가능하며, 확장계획은 검토중에 있다 한다. 이는 공고로 모집할 것이라 하며 소요사업비는 문중별 현황에 따라 5천만원부터 1억원 정도 소요된다 한다.

뿌리 표석을 지나 조금 올라가면 한국족보박물관이 있다. 이곳을 구경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박물관내에는 우리나라 유일한 족보전문박물관으로 5개의 상설 전시실과 1개의 특별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족보의 체계와 역사 등 전통문화와 가족생활사에 관계 등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전시실은 1부터 5전시실까지 있는데 제1전시실은 족보의 체계, 제2전시실은 족보의 간행, 제3전시실은 족보의 역사, 제4전시실은 족보의 체계, 제5전시실은 족보의 뿌리 향한 그리움. 다음은 기획전시실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우리나라 성씨별로 문중별 인구 등이 있는데, 우리 사천(동성)이씨도 있는데 우리 문중의 인구는 8,616명으로 되어 있다. 이 인구 내용은 1997년 이전 통계로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느낀 점은 우리 성씨가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반가웠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조형물 있는 곳을 둘러보았다. 정말로 감탄할 정도였다. 정렬도 잘 되어 있고 주변정리 환경도 매우 만족하였다. 나는 우리 문중의 조형물이 없어 매우 섭섭하였다.

여기에 찾아온 관광객과 문중 관계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관람하고 참배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또한 "효"에 대한 체험관도 있으며 앞으로 자녀들과 같이 뿌리 공원을 찾아서 관람하는 것도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관광코스도 한번쯤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보며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다. 세계유일의 "효" 테마 뿌리공원에서 효와 성씨를 주제로 나의 뿌리를 찾아보고 조상의 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여 세대간 소통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미래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본다.

우리 문중도 뜻있는 종인의 힘을 모아 이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한 방문도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후세대가 이곳을 방문할 때는 "기"를 살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년 원고]



뿌리공원 전경